



1. ‘붙다’와 ‘붙다’

라면 면발이 텅텅 붙어 갈 때, “라면이 붙기 전에 어서 먹자”라고 말하는걸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물에 젖어 부피가 커지다’는 뜻의 단어는 ‘붙다’가 아니라 ‘부다’입니다. ‘부다’는 ‘바람이 부다’ ‘피리를 부다’ ‘영어회화 바람이 부다’와 같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부다’는 ‘부다, 부고, 부으니, 부는...’과 같이 활용하는 ㄷ 불규칙 용언입니다. ㄷ 불규칙 용언은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이 올 때 어간의 ㄷ이 ㄹ로 바뀝니다. ‘부기’의 경우 ‘부+기’의 형태인데, 어간인 ‘부-’ 뒤에 자음인 ‘ㄱ’이 오므로 ‘부기’가 아니라 ‘부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면이 부기 전에 어서 먹자”와 같이 ‘부기’가 아닌 ‘부기’를 써야 합니다.

※ ㄷ 불규칙 용언이란?

- 활용할 때 어간의 끝소리 ‘ㄷ’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ㄹ’로 변하는 용언
- 듣다, 신다, 일컫다, 묻다(問), 걷다(步) 등이 있다.
- ‘부다’의 어간 ‘부-’에 ‘기’를 붙여 ‘부+기’의 형태를 만들 때, ‘부-’ 뒤에 자음인 ‘ㄱ’이 오므로 ‘부기’가 된다.
- ‘부+어’->‘부어’ 예서와 같이 ‘부다’의 어간 ‘부-’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어’가 오자 ‘부어’와 같이 변하는 걸 볼 수 있다.

2. ‘돋구다’와 ‘돋우다’

‘돋구다’와 ‘돋우다’는 많은 사람이 헷갈려 쓰는 단어입니다. 특히 ‘화를 돋구다’에서와 같이 ‘돋우다’를 써야 할 자리에 ‘돋구다’를 쓰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돋구다’는 “할머니께서 책을 보실 때마다 안경을 자주 닦으시는 걸 보니 안경 도수를 돋구어 드려야겠다”에서와 같이 ‘안경의 도수 따위를 더 높게 하다’는 의미로만 쓰인답니다.

‘기분이나 흥미, 의욕, 입맛 등을 더 높아지게 하다’ 또는 ‘수준이나 정도를 더 높이다’를 의미할 땐 ‘돋우다’를 써야 합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안경의 도수를 높이다’에만 ‘돋구다’를 쓰고 그 외에는 ‘돋우다’를 쓴다는 것!

[1차시] 바른 표현, 건강한 글



3. ‘지그시’와 ‘지긋이’

“아랫입술을 지긋이 깨물었다”와 “아랫입술을 지그시 깨물었다” 중 어느 것이 맞을까요?
많이 헷갈리시죠? ‘지그시’는 두 가지 뜻으로 사용되는 부사입니다. 첫째는 “그는 지그시 눈을 감았다”에서와 같이 ‘슬며시 힘을 주는 모양’ 둘째는 “두통을 지그시 참았다”에서처럼 ‘아픔이나 어려움을 조용히 참고 견디는 모양’을 나타냅니다.
‘지긋이’는 ‘지긋하다’에서 온 부사이며 역시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나이가 지긋이 들어 보였다”에서와 같이 ‘나이가 비교적 많아 듬직하다’, 둘째는 “내 딸은 책상 앞에 지긋이 앉아 있지 못한다”에서처럼 ‘참을성 있고 끈기 있게’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따라서 아랫입술을 깨물 땐 ‘슬며시 힘을 주는 모양’을 뜻하는 ‘지그시’를 써야 바른 표현입니다.

4. ‘빠르다’와 ‘이르다’

뉴스를 보면 “빨라야 이달 말” 또는 “빠르면 다음주”와 같은 표현을 종종 보고 듣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빨라야, 빠르면’을 모두 ‘일러야, 이르면’으로 고쳐 써야 합니다.
‘빠르다’는 어떤 동작을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짧다’는 뜻으로 속도(速度)와 관계가 있습니다. “두뇌 회전이 빠르다” “약효가 빠르다” 등과 같이 쓰입니다.
‘이르다’는 ‘계획한 때보다 앞서 있다’는 뜻으로 시기(時期)와 관계됩니다. “아직 포기하기엔 이르다” “올해는 첫눈이 이른 감이 있다”처럼 쓰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속도’는 ‘빠르다’, ‘시기’는 ‘이르다’!

5. ‘반증(反證)’과 ‘방증(傍證)’

‘반증’과 ‘방증’은 둘 다 뜻이 어려운 단어이기도 하고, 그래서인지 많은 사람이 잘 틀리는 단어입니다. 다음 예문을 보면서 어떻게 사용하는 게 맞는지 살펴봅시다.
“(학교에서) 문장을 쓰는 훈련을 받지 않고 졸업해서, 회사에 들어가고 나서 다시 맞춤법을 배운다. 이런 현상은 모두 학교 커리큘럼이 단순한 타성에 의해 짜여 있다는 (반증/방증)이다” (노구치 유키오의 『超학습법』에서). 위에서 ‘반증’과 방증’ 중 어떤 게 바른 표현일까요? ‘방증’이 정답입니다.

[1차시] 바른 표현, 건강한 글



‘방증’은 ‘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되진 않지만, 주변의 상황을 밝힘으로써 간접적으로 증명에 도움을 주는 증거’를 의미합니다.

반면에 ‘반증’은 ‘어떤 사실이나 주장이 옳지 아니함을 그에 반대되는 근거를 들어 증명함,

또는 그런 증거’라는 뜻입니다. ‘반증’과 ‘방증’을 쉽게 구별하기 위해선 ‘반증’ 대신 ‘부정적(반대되는) 증거’를, ‘방증’ 대신 ‘간접적(뒷받침하는) 증거’를 대입해 보면 된답니다. 노구치 유키오의 『超학습법』에서 나온 예문에 적용해 보면 “~ 짜여 있다는 ‘반대되는 증거’이다”는 말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6. ‘작렬’과 ‘작열’

“작렬하는 태양”과 “작열하는 태양”. 어떤 게 바른 표현일까요?

‘작렬’과 ‘작열’ 역시 많이 사람이 혼동해 쓰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까요?

‘작렬’은 포탄 따위가 터져서 짹 퍼지는 것을 말합니다. “작렬하는 수류탄” “비격진천뢰는 까맣게 솟구쳐 적진으로 떨어지면서 작렬한다”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두 점을 뒤흔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승엽의 석 점 홈런이 작렬했다”의 경우는 홈런을 포탄이 터지는 것에 비유한 표현이랍니다. ‘작열’은 불 따위가 이글이글 뜨겁게 타오르는 것을 말합니다. “오후의 태양이 작열하고 있었다” “작열하는 사막”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위산이 역류하면 가슴 부위에 작열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의 경우도 ‘타는 듯한 느낌’을 말하므로 ‘작열’을 쓴 것이랍니다. 그러므로 위에서 말한 예문에서는 “작열하는 태양”이 바른 표현이겠죠.